

영화 만드는 청소년·자립준비청년 ‘응원의 장’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주최 영상 공모 ‘10회 중딩영화제’ 광주각화중 박가영 ‘슬래’ 대상 자립준비청년 활동보고회 성료 “사회적 관심과 지원 촉진할 것”

청소년들의 영상 창작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영화제와 자립준비청년의 도전과 성과를 알리는 활동보고회가 광주에서 개최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9일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광주센터)에 따르면 ‘제10회 중딩영화제’가 광주센터 다목적홀에서 지난 19일 개최됐다.

중딩영화제는 전국 유일의 중학생만을 위한 영화제로 미디어·방송 분야 꿈나무 발굴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주최하고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이 후원하는 영상 공모전이다.

지난 10월부터 2달간 광주, 전남, 전북, 서울, 강원, 제주 등 전국에서 접수된 101편의 작품 중 예선과 본선을 거쳐 대상 1점(방송통신위원장상), 최우수상 4점(광주시교육감상, 전남도교육감상), 우수상 4점(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상) 등 13점을 선정했다.

올해 대상은 광주각화중학교 박가영 학생이 제작한 ‘슬래’가 차지했다. 이 작품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두렵고 불안한 심리를 슬래잡기로 표현해 기획력과 예술적 완성도, 파급효과 부분 등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피고말리온(고흥여자중학교 김경원) △네가 없는 학교(서울염창중학교 서완) △가거2090(신안혁신중학교 고다은) △서동(전북익산황등중학교 김환웅) 등이 수상했다.



지난 19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10회 중딩영화제’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제공**

이어 우수상은 △시간의 상자(경북경산여자중학교 연지민) △파도에 의한 침몰(울산범서중학교 양선) △다시 만날 수 있기를(전북익산부천중학교 이우빈) △알라딘(강원가정중학교 외 연합), 장려상은 △양곡고담19(경기양곡중학교 이예성) △별뿔(부산동아중학교 서은혜) △노을 지고 온 내일(인천능허대중학교 김시원) △후회(광주송광중학교 국의진)가 각각 수상했다.

이번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상훈 광주영화영상인대 이사장은 “출품된 작품들은 격변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청소년들의 다양하고 예민한 시선과 풍부한 관점이 담겨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영화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완성해

나가기 바란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중딩영화제 시상식에 앞서 10주년을 기념하는 부대행사도 진행했다. 광주센터는 1층 체험관, 2층 스튜디오를 활용해 더빙 체험과 영화제 현장 인터뷰 체험 등 시상식에 방문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미디어 체험을 제공했다. 시상식의 모든 과정과 수상작은 광주센터 유튜브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광주센터는 앞서 지난 5일 자립준비청년의 도전과 성과를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한 활동보고회도 개최했다.

광주센터는 그동안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미디어 속 편견 극복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커뮤니티 ‘한울’의 당사자성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왔다.

특히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정보 전달을 위한 유튜브 채널 개설, 영상 제작 등에 참여하면서 청년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광주센터는 ‘한울’과 협력해 청년들의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활동보고회를 마련했다.

행사는 자립준비청년, 서포터,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간식구 상영 △성과 발표 △관객과의 대화 △자립준비청년 창업가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최유명 광주센터장은 개회사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지속 모색하겠다. 앞으로도 미디어 취약계층의 든든한 배경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과 발표를 진행한 김남중 한울 대표는 “책임감을 가지고 호남권의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지속 가능한 당사자 커뮤니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방송법 제90조의 2에 의해 설립됐다. 미디어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현재 광주, 부산,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울산, 경기, 충북, 세종, 경남, 대구 12개 지역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광주대학교 LINC3.0사업단은 지난 20~21일 여수 유담마리나 호텔에서 ‘바이오웰니스 워크숍’을 개최했다. **광주대학교 제공**

광주대 LINC3.0사업단, ‘바이오웰니스 워크숍’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통한 협력 “최신 기술 동향 파악 등 큰 도움”

광주대학교 LINC3.0사업단은 지난 20~21일 여수 유담마리나 호텔에서 지자체 연계 인큐베이팅 ‘바이오웰니스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바이오웰니스분과는 뷰티·건강기능성 식품·신재생에너지 등 웰니스 사업 영역의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을 통한 협력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강태욱 경북대학교 발효물기계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의 미세 기포 기술의 식물성장 촉진 △이호준 한국섬유융합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바이오 플라스틱을 활용한 화이트 바이오

산업기술 등 특강 후 ‘바이오연료 개발과 바이오 소재의 응용 확대를 위한 협업 방안 논의’를 주제로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바이오웰니스분과 부단장을 맡고 있는 백지환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워크숍을 통해 화이트바이오 및 그린바이오 관련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했으며,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기술적 과제를 논의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노선식 LINC3.0사업단장은 “바이오웰니스 분야 산업의 융합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지산학연 신규 사업 및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가치에 같이 더하다’... 그린국악 2025년 첫 시즌 개최

전남도립국악단 토요일가무악회 내달 4일부터 남도소리울림터

전남도립국악단이 내년 시즌 첫 토요일가무악회 무대를 앞두고 있다.

전남도립국악단은 ‘가치에 같이 더하다’란 새로운 슬로건을 걸고 다음달 4일부터 ‘그린국악’ 공연을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무안군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새로운 슬로건에 맞춰 오랜 시간 공들여 온 전통 가무악회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매달 부서별 무대를 강화한 시리즈 공연을 다수 올린다.

다음달 18일 ‘기악 산조 시리즈’로 가야금, 대금, 아쟁에 이르기까지 기악부 단원들의 기량이 돋보이는 가락 선율을 연주한다.

오는 2월8일에는 ‘심청가’ 중곡씨 부인 장례 대목, ‘춘향가’ 동헌경사 대목, ‘흥보가’ 제비노정기 대목, ‘적벽가’ 자룡할 쏘는 대목 등 판소리 인기 대목들을 엄선한 ‘판소리 시리즈’를 무대에 올린다.

이어 3월15일에는 박재희류 태평무와



전남도립국악단은 다음달 4일부터 ‘그린국악’ 공연을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무안군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 무대에 선보인다.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김진홍류 지전춤, 임이조류 화선무, 이매방류 살풀이, 서한우류 버구춤 등 우리나라 대표 명인들의 춤들을 한데 모은 ‘전통 무용 시리즈’를 선보인다.

이 외에도 3월1일에는 삼일절 106주년을 맞아 특집공연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시즌 마지막 주인 3월29일에는 토요일 특별공연 ‘신춘음악회’를 통해 관객들과 함께 봄을 만끽할 예정이다.

총연출을 맡은 조용안 예술감독은 “새

해 전남도립국악단의 목표는 멋과 흥이 살아있는 우리의 전통음악을 보다 ‘가치’ 있게 ‘같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우리 음악에 울고 웃는 본격적인 귀 명창 시대를 다시금 재현할 수 있도록 대중적이고 재미있는 공연들을 많이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공연에 관한 예매 문의는 (061-980-9955)로 하면 된다. 관람료는 1만원. **박찬 기자**

국립광주과학관, ‘내부통제 실천 결의대회’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국립광주과학관은 지난 24일 대회의실에서 ‘내부통제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 직원의 내부통제 실천 의지를 다지고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대회에서는 내부통제 체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부정 예방 및 청렴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내부통제 추진실적 점검 △내년도 내부통제 방향 논의 △청렴 서약서 작성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 직원이 스스로 청렴 실천과 책임감을 다짐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정구 국립광주과학관 관장은 “이번

내부통제 실천 결의대회는 국립광주과학관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모든 직원이 윤리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조직 내 부정 방지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청렴하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과학관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박찬 기자**

Advertisement for 'Local Newspaper Development Fund' (지역신문발전기금) highlighting the 19th consecutive selection of Jeonnam Ilbo as a trustworthy newspaper.